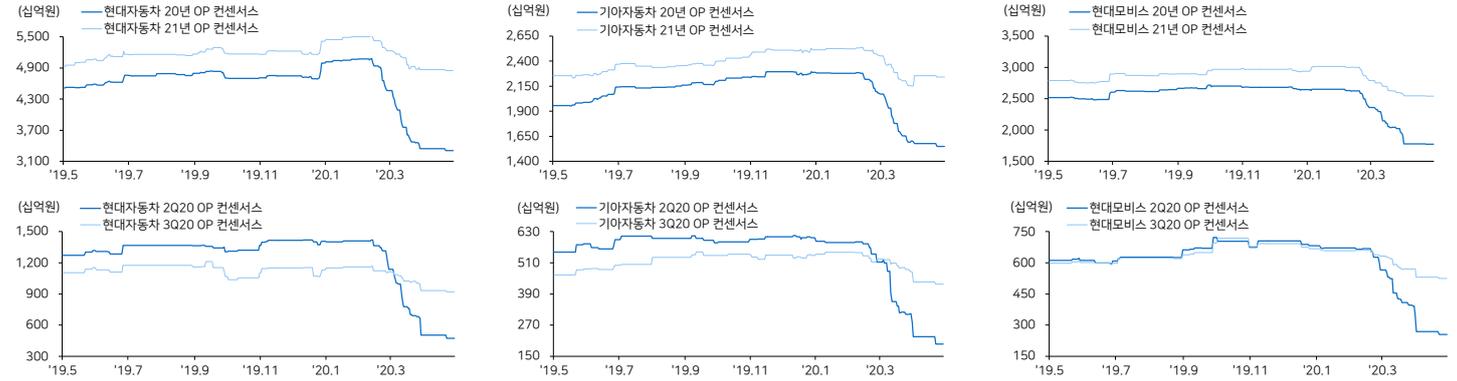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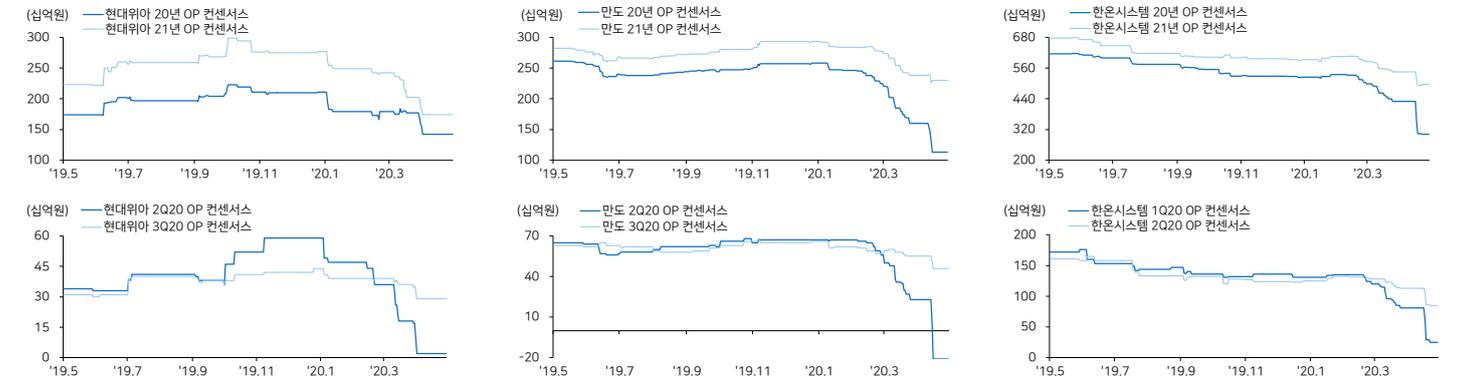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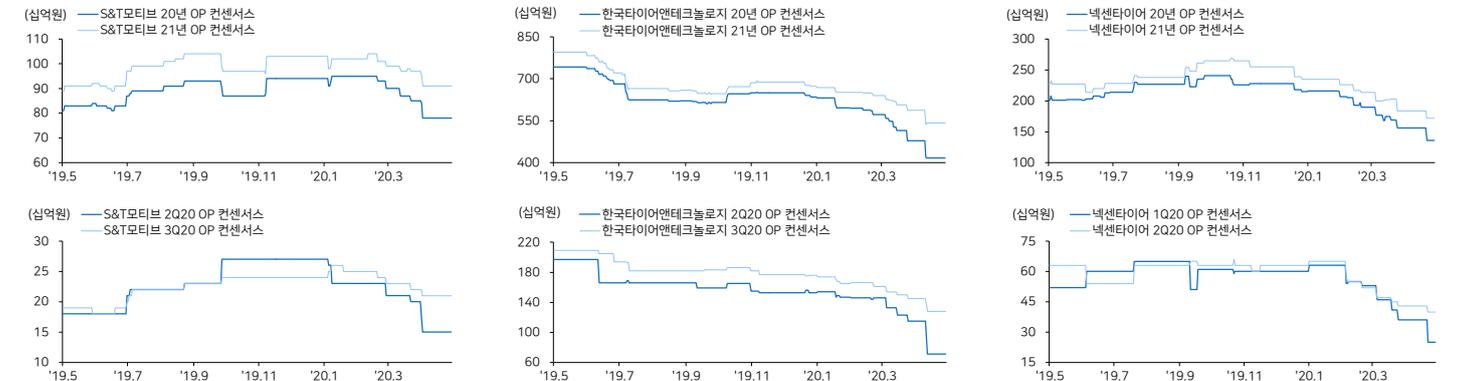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'더 뉴 쏘렌타페' 티저 이미지 공개...내달 출시 (헤럴드경제)

현대자동차가 중형 SUV '더 뉴 쏘렌타페'의 외장 티저 이미지를 26일 공개. 더 뉴 쏘렌타페는 2018년 2월 출시한 4세대 쏘렌타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6월 중 디지털 언박싱 행사를 통해 출시될 예정.
<https://bit.ly/2ZGf5Hm>

현대모비스, 조직 개편...전기차·자율주행 개발 '역량집중' (미디어펜)

현대모비스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. 현대모비스는 날렵하고 민첩하면서도 유연한 조직 체계를 통해 신속한 사고 전환을 도모하는 애자일(Agile) 조직을 오는 6월 1일부터 도입.
<https://bit.ly/2X3wVbz>

수소·전기차 등 친환경차 공공부문 비율 2030년 90%까지 확대 (연합뉴스)

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친환경 차량 비율이 지난해 12.7% 수준에 머물렀던 2030년까지 이를 90%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됨.
<https://bit.ly/2MdB9HL>

글로벌 자동차 공장 다시 문닫아...국내 부품업체 생산라인도 예외 (국제신문)

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자동차업계가 생산과 판매 재개를 모색 중.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통제정책과 경기침체로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생산과 판매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탓.
<https://bit.ly/2zoCzfw>

송호성, 미국 자동차 수요회복 맞춰 기아차 새 K5와 쏘렌토 출격 준비 (비즈니스포스트)

기아차는 하반기 미국 시장 수요 회복에 맞춰 K5와 쏘렌토 새 모델을 출시. 기아차는 지난해 델라와이드와 올레 셉토스를 출시하며 신차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코로나19 이후 K5와 쏘렌토 새 모델을 통해 흐름을 이어갈 준비 중.
http://www.businesspost.co.kr/BP?command=article_view&num=179885

현대차 노조, 수출 전략 후 '투싼' 해외 생산 반대 (이데일리)

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기 수출 모델인 중형형 SUV 투싼의 미국 공장 생산을 반대하고 나섬. 이에 현대차는 울산 5공장 등 거점에서 투싼을 추가 생산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.
<https://bit.ly/3enhLDU>

국내로 늘들린 타이어업체... 교체용 타이어 시장 경쟁 치열 (파이낸셜뉴스)

타이어시장 1위인 한국타이어와 교체용 시장에서 1위인 금호타이어가 내수 교체용 타이어 시장을 놓고 경쟁이 가열. 두 회사는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하고 OE 시장이 어려워지자 국내 RE 타이어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.
<https://bit.ly/3gua15c>

르노·닛산·미쓰비시 통합운영 가속...르노는 유럽, 닛산은 중국 '역할분담' (조선비즈)

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프랑스 르노와 일본의 닛산·미쓰비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27일 '3사 운영 통합안'을 발표.
<https://bit.ly/3gs6C6z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